

11. 파주 보광사 동종 (坡州 普光寺 銅鍾)

가. 검토사항

‘파주 보광사 동종’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로부터 ‘파주 보광사 동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21.11.3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3.4.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1995.8.7. 지정)
- 명 칭 : 파주 보광사 동종(坡州 普光寺 銅鍾)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보광사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보광로474번길 87, 보광사
- 수 량 : 1구
- 규 격 : 전체 높이 94.9cm, 입지름 64.1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쌍룡의 종뉴를 가진 동종(불교의식구)
- 조성연대 : 1634년(인조 12)
- 제작자 : 천보(天寶),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파주 보광사 동종>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파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인조 12) 7월에 현재의 봉안 사찰인 고령산(高嶺山) 보광사에 사용하기 위해 청동 300근을 사용하여 조성하였다고 하여 조성연대가 명확하게 밝혀진 점, 17세기 전반 승장(僧匠)의 선도적 역할을 한 설봉(雪峯) 천보(天寶)가 조성한 현존하는 마지막 작품이라는 점, 기문(記文) 형식의 주성기(鑄成記)로 정확한 제작연대가 밝혀져 있고, 제작 목적이 확인되는 점, 봉안사찰이나 발원자 및 후원자 및 제작 장인 등이 명문으로 기록된 점에서 불교공예사나 조선 후기 주종장의 계보 및 활동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보광사 동종은 고려말 연복사 종의 형식을 계승한 조선 초기의 종을 이어 받으면서 재래식 범종 형식과 외래적인 중국식 띠장식을 절충 혼합하여 토착화시킨 17세기 종의 양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다.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설봉 천보의 범종은 15세기에 왕실 발원 종의 영향을 받은 1595년 양천목(梁天目)이 제작한 금사사 종의 영향을 받아 이후에 독자적으로 발전한 주종장으로서 그가 제작한 범종들은 이전의 형식과 양식을 기반으로 하되 이전의 제한적이고 일관된 경향과 달리 발전적인 기술력과 창작적인 문양과 장식 및 차별화된 도상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되어 예술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천보가

제작한 4기의 범종 중 1634년 보광사 동종은 가장 마지막 시기에 제작한 종이면서 종뉴에는 오고저(五鈷杵)와 ‘王’자형 오조룡의 쌍룡을 배치하고, 종신의 하대에 오조룡문과 수파문 등의 표현은 조형적 가치가 우수하다. 특히 설봉 천보는 동일한 진언이라도 란차문자라는 새로운 범자체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란차문자 범자의 사용은 고려시대 1346년 원나라 장인이 제작한 연복사 범종에서 확인되는데, 우리 조선에서 활동한 주종장 중 란차문자 범자를 구성에 맞게 처음으로 배치하여 사용한 1634년 <보광사 동종>은 설봉 천보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사례로 여겨진다.

이처럼 1634년 설봉 천보가 제작한 보광사 동종은 역사적, 학술적, 공예사적, 조형 예술적 가치 뿐 아니라 독창적인 면에서도 탁월하여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1995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파주 보광사 동종>은 종뉴와 종신이 완형을 갖추고 있으며, 종신의 문양과 명문의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전체적인 외형은 안정감이 있고 종뉴의 조각 솜씨는 우수하며, 종신의 장식도 섬세한 표현이 돋보인다. 또한 명문을 통해, 동종의 제작연대와 목적,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와 후원자, 장인과 재료 등에 관한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승장 천보의 기록은 17세기 동종의 제작과 장인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가 남긴 동종은 보광사 동종을 포함하여 모두 5점이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 <가평 현등사 동종>과 <거창 고건사 동종>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천보가 제작한 동종은 대체로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를 갖추고 종신은 가운데 세 줄의 횡선을 둘러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였는데, 이는 외래형 범종의 특징으로 조선 후기 승장의 동종 제작과 계통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보광사 동종은 천보의 말년 작품으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 그리고 17세기 후반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파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의 제작 시기, 조성 당시에 봉안된 사찰인 보광사의 유보로 전하는 점, 승장 천보의 작품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7세기 전반, 전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행된 사찰의 중건과 재건, 승장의 계보와 활약, 금속공예 기술의 수준과 특징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동종은 한국 전통 종 양식과 중국 종 양식이 절충된 양식으로 천보가 이보다 앞서 만든 동종 양식을 잘 계승 발전시키고 있어, 전체적으로 중복에 새겨진 문양

의 배치와 표현이 세련되고 조화로우며 종의 형태도 매우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중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에 현존하는 천보의 모든 종들이 어깨 부분과 그 이하 부분을 철붙의 제작방식과 같은 틀을 이어 붙여 주물하는 분할 구조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도, 천보의 제작기법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동종 제작기법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더불어 종의 배 부분에 반듯한 해서체로 적은 주종기를 통해, 당시 종을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 주관자와 참여자, 제작자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 종은 천보가 제작한 동종 중 가장 늦은 시기의 작이다. 그러나 1595년 금사사 동종을 시작으로 해서, 1619년 가평 현등사 동종, 1630년 거창 고견사 동종, 1633년 안변 석왕사 동종, 1634년 파주 보광사 동종에 이르기까지의 천보 동종의 변천과 제작태도, 동종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연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역사적 의미가 크다. 더욱이 앞선 시기의 동종에서는 설봉 천보가 직접 주종장으로서 제작에 참여하였다는 증거자료가 다소 부족한데 반해, 이 종에서는 ‘鑄成畵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도장까지 새겨 넣음)’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 그가 종의 문양 도안뿐만 아니라 주성까지 주도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보다 앞서 제작한 천보 동종 역시 그가 제작을 주도했음을 이 자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이 종은 조선 후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종의 양식과 달리 봉선사 동종(1469년)이나 홍천사명 동종, 해인사 동종(1491년) 등 조선 전반기 동종 양식을 강하게 계승하고 있다. 이는 천보의 활동지역이 봉선사를 포함하는 지역이고, 그가 1619년 가평 현등사 동종(원 봉선사 동종)을 만들었기 때문에 1469년에 제작된 봉선사 동종을 범본 삼아 그의 동종 양식을 추구했을 것으로 추정케 한다. 한편 천보의 동종 양식은 1644년 담양 용흥사 동종을 제작한 김용암, 1698년 고흥 능가사 동종을 제작한 김애립 등 17세기 중·후반에 제작된 私匠의 동종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17세기 한국 주종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동종이다.

특히 사인비구 동종 8점이 전체가 일괄로 보물로 지정되어 한 주종장의 작품이 통합적으로 보존관리가 되고 있다. 비록 사인비구의 종에 비해 그 수가 적으나, 천보는 사인비구보다 앞서 활동한 경우를 비롯한 사인비구의 주종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선배 주종장일 뿐만 아니라, 그의 종 양식이 조선 전기 동종양식을 강하게 풍기면서도 17세기 새로운 시대 미감도 가미하여 동종 작업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동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설봉(雪峯) 천보(天寶)가 제작한 <파주 보광사 동종(1634년)>은 원 봉안처를 떠나

이운(利運)의 역사가 많은 다른 범종들과 달리 최초 봉안처에서 온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며 잘 보존된 보기 드문 범종이다. 양식사 측면에서는 중국종의 형식을 수용하는 동시에 우리 고유의 미감을 반영하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조선 전기(15~16세기) 범종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특히 그 제작 시기와 천보의 활동기간을 통해 조선 전기와 후기의 접점으로 과도기적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예술적 성취도 또한 17세기 대표 범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수한 작품이다. 그것은 천보가 제작한 범종으로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등사종(1619년)>, <고건사종(1630년)>과의 비교 분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상부 천판과 용뉴의 안정적인 결합, 섬세한 세부 조각 수법, 종신 문양의 적절한 양감과 구성이 기존의 종들에 비해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문양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면모 역시 탁월한데 그것은 보살신앙과 직결되는 대표 진언(眞言)을 보살상과 함께 표현한 것에서 충분히 전해진다. 또한 수호의 상징인 용이라는 소재를 다른 범종들에 비해 문양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에서도 이 범종에 담긴 염원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다양한 범종의 세부 장엄 요소들이 전체 종신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복잡함보다는 안정감 있는 범종의 전체 미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파주 보광사 동종>의 예술성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필체가 훌륭한 장문(長文)의 명문(銘文)과 기운생동 하는 용들의 표현은 15세기 왕실 발원의 수준 높은 범종들의 양상과 가깝게 여겨질 만큼 역사적 자료의 가치와 작품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파주 보광사 동종>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주종장인 설봉천보가 장인으로서 완숙의 단계에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기존의 작품들에 비해 그 탁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가치들을 종합해 볼 때 2012년 이미 보물로 지정된 천보의 두 범종의 사례처럼 그 일관된 가치 기준과 의미에 있어 <파주 보광사 동종>은 절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보다 더 우수한 작품이기 때문에 신속히 국가 보물로 지정되어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보광사 동종>



<보광사 동종 정면 실측 치수>

과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인조 12) 7월 승장 설봉(雪峰) 천보(天寶)가 여러 승장(僧匠)과 함께 조성한 높이 94.9cm, 지름 64.1cm의 비교적 큰 작품이다. 이 범종은 위쪽에 쌍룡의 종뉴가 역동적으로 환조되어 있고, 종신에 굵은 횡선으로 문양대를 구획하고 물결문[水波文]이나 구름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용문(龍文)을 표현하고 있으며, 1,300여 자의 긴 명문(銘文)을 돌을새김[陽刻]으로 새기고 있다. 이 범종의 제작기법은 조선시대에 종신과 별도로 천판과 용뉴를 주조하여 종신에 부착하는 특징이 반영되었고, 주물을 마치고 연판문대의 결함이 발견되어 다시 주조하였지만, 범종의 전체적인 형태나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주조기술로 문양을 처리하는 등 우리나라 범종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무엇보다도 이 동종을 주목하는 이유는 종신 중앙을 가득 채워 주성기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조성연대와 보광사

라는 소장처가 밝혀져 있고 조성목적을 새겼으며 발원자와 제작 승장 등이 정확하고 여기에 제작자의 인장까지 확실하게 양각하여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파주 보광사 범종은 전체적인 형태나 문양을 뛰어난 기술과 완숙한 솜씨로 제작하여 조형적으로도 탁월하다.



<보광사 동종 우측면도 실측>



<보광사 동종 배면 실측>



<보광사 동종 평면도 실측>



<보광사 동종 안쪽면 실측>

○ 내용 및 특징

1. 보광사의 입지적 환경

파주 보광사(普光寺)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고령산에 위치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奉先寺)의 말사이다. 894년 도선국사(道詵國師)가 국가 비보사찰로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창건 이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소략한 편이다.

조선시대에 중창된 보광사의 존재는 대웅보전에 소장되어 있는 1634년 승정칠년명 범종에 새겨져 있는 명문으로 확인된다. 명문에 의하면 보광사는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전소된 것을 1602년(광해군 14)에 해서(海西)의 승려 설미(雪眉)가 법당을 세우고, 호서(湖西)의 승려 덕인(德仁)이 승당을 세워 사방에서 훌륭한 선사들이 사찰로 운집하였다 한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 이후 보광사가 17세기에 중창되었고, 1667년(현종 8)에는 지간(智侃)과 석련(釋蓮)이 중수하였다.

특히 보광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는 조선 후기 영조대부터이다. 1740년(영조 16) 영조가 자신의 사친인 숙빈 최씨(1670~1718)의 능원인 소령원을 영건하였는데, 이때 보광사가 소령원을 수호하는 원찰로서, 경기도의 사찰 중 왕실 능원 원찰 7곳 중 하나로 기록되면서부터이다. 이때 대웅보전과 광응전(光膺殿), 만세루를 중수하였다. 이후 영조는 1753년 보광사와 관련된 시문을 57절 20수를 지었고, 1759년(영조 35) 3월에는 교서를 내려 ‘보광사는 능원의 수호사찰이며 일찍이 머물러 왔던 곳’이라고 공표하여 국왕 영조가 능행 시 들렀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당시 보광사는 공릉·순릉·영릉의 ‘조포사(造泡寺)’이자, 서삼릉의 ‘능사(陵寺)’로, 소령원의 불사(佛寺)로 기록되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왕릉의 능원사찰로

기능하면서 왕실의 대대적인 후원 아래 관리되고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보광사 경내에는 어실각(御室閣) 즉 왕친(王親)의 위패를 모신 전각이 존재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한다. 이렇듯 영조대 왕실원당이자 주요 사찰로 자리 잡은 보광사는 이후에도 국왕의 행행 시 찾게 되면서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사세를 유지하며 전각의 중창 등이 이뤄졌다.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1863년(철종 14)에는 쌍세전(雙世殿), 즉 지금의 명부전과 나한전(羅漢殿), 즉 지금의 응진전, 큰방 만세루·수구암(守口庵)을 건립하고 지장보살과 시왕상(十王像)·석가모니불·약사여래불·아미타삼존불과 미륵보살과 대세지보살상·16나한상 등을 조성하였다. 이후 대원군과 고종과 민비 등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으며 사세를 유지 발전하게 되었다. 1869년(고종 6)에는 만세루를 중수하였는데 1998년 만세루 해체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당시 세도가인 안동김씨 일가 즉, 김병학·김병국·김병기 등이 주요 시주자로 참여하여 왕대비 조씨의 수복과 흥선대원군 이하응,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의 안녕을 기원하며 만세루를 중수한 것이 확인되었다. 1884년(고종 21)에는 관음전과 별당을 지었고, 1893년에는 산신각을 신축하였다. 1896년 상궁 천씨가 중수 불사에 뜻을 두어 인파 영현(仁坡英玄)이 1897년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898년에는 순빈 엄씨와 상궁 홍씨의 시주로 단청불사도 행하여 영산회상도를 비롯하여 삼장보살도, 현왕도, 칠성도, 독성도, 감로도 등 6점의 불화가 조성 봉안되었다.



<파주 보광사 만세루, 1869년>

2. 주성기(鑄成記)에 의한 명문 분석

보광사 범종의 주성기는 종신의 중앙 하단부의 띠장식대 밑에 넓게 새겨져 있다.



<파주 보광사 동종의 명문대>

조선 양주땅 고령산 보광사에서 새롭게 주조한 보배로운 종에 새기는 글

듣기에 이 절은 고려 때 도선국사가 국가의 비보로 경영하기 위해 세웠다고 하나, 조선에 들어와 만력 년(1592) 임진병화로 모두 전소되어 사슴의 놀이터가 된 지가 오래이다. 만력 30년 임인(1602)에 해서의 스님 설미와 호서의 스님 덕인이 이 터에 처음으로 들어와 보고 이름난 사찰이 언덕이 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탄식하였다. 설미가 법당을 세우고 덕인은 승당을 세우니 비로소 사방의 훌륭한 선사들이 운집하였다. 온갖 물건들이 한꺼번에 전과 다름없이 갖추어졌으나 종 하나가 빠져 덕인 스님의 애석함은 끝이 없었다. 승정 신미(1631)에 종을 만들려고 노스님 도원을 추대하여 3년 만에 간신히 청동 80근을 모았지만 종을 만들어 사찰에 바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금의 화주 신관은 해서의 승려로 계유(1633) 7월에 도원을 이어 자리에 올랐는데 이는 수승인 학잠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이때 절에 승려 20여 명이 모두 힘을 써 도왔다. 별좌인 지십은 덕인의 제자로 덕인의 염원을 받아 정성을 다하였고 싫어하는 내색이 없었다. 아, 이 사람의 정성으로 이 절에서 만들어져 종에 글을 새길 수 있게 되었다. 얹어져 있는 종은 금속, 돌, 실, 대나무, 바가지, 흙, 가죽, 나무 등 8가지 종류의 소리가 아니다. 크게 치면 그 소리가 크고 작게 치면 그 소리가 작으며 귀신을 경계할 수 있다. 내게 씻물을 붓기를 청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글을 짓는다.

-----중간 생략-----

승정칠년월 일 무게 300여 근으로 종을 만들다.

동참질 대공덕주 신은복 양주 이금련 양주 유언홍 신천립 박춘무 원현
본사조연질 언기 천옥 영옥 덕인 학잠 단식 영호 옥규 쌍일 계옥 인전 응성
설암 신종 선잠 윤명 유혜 초영 유협 진기 범후 묘정 학정 홍신 신영 법휘 가
문 학민 지건

동참질 이장수 여청비 여동령 엄어둔 양용 임종희 윤돌금 박동석 김해룡 김균
남 김신남 오돌시 박태복

연화질 경섬 주성비대장미지산설봉자 천보 조역 상륜 선잠 경립

별좌 지십

공양주 치경 간선권

화주 비구신관 평보거사 지인길 조단손 의열 신호 묘신 유석 경학 일주 일환
법정 응성 성현

명문에 의하면, 보광사는 고려 때 도선국사의 비보사찰(裨補寺刹)이었는데, 임진왜란으로 황폐화되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1602년 해서의 승려[海西僧] 설미(雪眉)와 호서의 승려[湖西僧] 덕인(德仁)이 사찰 회복의 원을 세웠고 이후 사방에서 운집한 현사들과 힘을 합해 대웅전과 승당을 중창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명문에 의하여 이 동종은 승정 7년 갑술(1634) 7월일에 무게 300근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동원된 승려로는 해서의 승려 신관(信寬)이 화주가 되고 주성장인으로는 설봉자(雪峯子) 천보(天寶)와 함께 조역승려로서 상륜(尙倫), 선잠(善岑) 및 경립(敬立)이 함께 제작하여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명문과 함께 마지막에 ‘鑄成圖大匠彌智山雪峯子’라는 명문과 함께 ‘天寶’라는 인장이 양각되어 있다.

그동안 여러 범종 중 승장 천보가 관여한 범종은 명문에 의하면 총 5기가 밝혀졌지만 1점은 망실되었고, 현존하는 것은 4점이다.

<표1. 천보 제작 범종 현황>

연번	범종명	제작연도	명문 장인	원봉안처		현봉안처
				지역	사찰	
1	금사사명 범종	1595년	彌智山雪峯沙門天寶謹撰書…鐵匠 全南靈巖 梁天目	황해도 장연	금사사	평양 조선중앙력사 박물관
2	봉선사명 범종	1619년	天寶謹作書刻…緣化比丘 玄玉 正會大元 瑩仁	경기도 양주	현등사	경기도 가평 현등사
3	견암사명 범종	1630년	彌智山雪峯沙門天寶述…圖匠彌智山雪峯 沙門天寶 助役 緇竹 得男 得一	경상도 거창	견암사	경상도 거창 고견사
4	석왕사명 범종	1633년	釋 天寶 崇禎六年八月 十七日造	함경도 안변	석왕사	망실
5	보광사명 범종	1634년	鑄成圖大匠彌智山雪峯子 助役 尙倫 善岑 敬立	경기도 양주	보광사	경기도 파주 보광사



<금사사명 범종,
1595년>



<봉선사명 범종,
1619년>



<견암사명 범종,
1630년>



<안변 석왕사 범종,
1633년, 유리건판2626>

이처럼 설봉천보는 1595년부터 1634년까지 현존하는 4기의 범종을 제작했다.

첫 번째 것은 1595년 주물장 양천목이 제작한 금사사 동종이다. 이 종의 명문에 의하면 “有大明朝鮮國黃海道長淵 地洛迦山金沙寺重鑄寶金 鍾名并序 彌智山雪峰沙門天寶”라고 쓰여 있다. 이를 통해 양천목이 제작하고, 종의 찬문[謹撰書]을 천보가 지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범종은 북한의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번째 것은 1619년 봉선사명 범종이다. 이 범종의 명문에 의해 “化主天寶謹作”이라고 적혀 있어 화주가 천보였으며 그와 함께 찬문까지 지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종은 현재 경기도 가평의 현등사에 소장되어 있다.

세 번째 것은 1630년 견암사의 범종이다. 이 범종의 명문에 의해 “有大明朝鮮國居昌縣牛頭山見岩寺新鑄寶 金鍾銘并序...彌智山雪峯沙門天寶述緣化秩 畧大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라고 적혀있다. 이를 통해 천보는 찬문을 지었음 뿐 아니라 대장의 우두머리[도대장]로서 범종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고 여겨진다.

네 번째 것은 1634년 과주 보광사의 범종이다. 이 범종의 명문에 의해 “緣化秩敬遲 鑄成畧大匠彌智山雪峯子”라고 양각되어 있어 천보가 직접 제작했음을 알려준다.

				
<p>금사사 동종, 1595년(彌智山雪峰 沙門天寶謹撰書)</p>	<p>현등사 동종, 1619년(化主天寶謹 作書刻)</p>	<p>고견사 동종, 1630년(緣化秩 畧大匠彌智山雪 峯沙門天寶)</p>	<p>석왕사 동종, 1633년(畧大匠彌智 山雪峯沙門天寶)</p>	<p>보광사 동종, 1634년(鑄成畧大匠 彌智山雪峯子) 인장: 天寶</p>

더욱이 설봉사 천보가 만든 범종 중 북한에 소장된 1점과 망실된 1점을 제외하고 거창 고견사 범종과 가평 현등사 유물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비해 과주 보광사의 것은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과주 보광사 범종이 비록 설봉 천보의 유물 중 1634년으로 조성 시기가 늦기는 했지만 이것보다 시기가 내려가는 1641년 하동 쌍계사 범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주 보광사

범종 또한 지정가치에 대해 재고가 요구된다.

3. 범종의 형식

보광사 동종은 한국종의 특징인 음통이 없고 종뉴에는 중국종의 특징인 쌍룡이 배치되어 있는 조선 후기의 절충형 범종이다. 꼭대기 부분[鍾頂部]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벌어지는 포탄형 종신이 연결되어 있다. 보광사 동종은 종신의 외형선이 불룩하고 꼭대기부터 치마 옆처럼 흘러내려 오다가 종복(鍾腹)에 이르러서 구연부를 향해 다소 벌어지며 하강하는 선형을 보인다.



<금사사명 범종, 북한, 1595년>



<거창 고전사 범종, 1619년>



<파주 보광사 동종, 1634년>

3-1) 종뉴: 오조룡의 쌍룡 용뉴

보광사 동종은 1619년 가평 현등사 범종이나 1630년 거창 고전사 동종과 동일한 형식과 양식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그중 불룩이 솟아오른 천판 위에 하나의 몸체로 이어져 머리를 반대로 돌린 쌍룡의 종뉴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뉴에 배치된 꼬리를 맞댄 쌍룡은 역동적이고 환미감이 풍부하며 세부의 묘사가 생동감이 넘친다. 쌍룡의 얼굴은 용맹한 모습이 잘 형상화하여 눈코입의 세부 하나하나까지 허술함 없이 조각하여 기운을 전달해주고 있다.



<파주 보광사 동종의 쌍룡 용뉴>

쌍룡의 크고 부리부리한 눈은 한올 한올 아래를 향해 덮은 눈썹까지 제각각 묘사하여 힘을 느낄 수 있고, 통방울 같은 코에는 그 좌우에 수염까지 기가 느껴지고, 아래쪽 입에는 상하 양 이빨을 앙다물어 뽀족한 철물을 물고 있는 표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다. 얼굴의 좌우로는 귀가 쫓긍하고 이마에는 ‘王’자가 선명하게 음각되어 있으며 2개의 뿔이 V자 형으로 위로 강인하게 솟구친 모습이다. 쌍룡은 몸체를 용트림하여 꼬여 있으며 얼굴 좌우로는 몸체에서 뻗어 나온 근육질의 발에 있는 발가락 5개는 발톱 끝까지 온 힘껏 기를 모으면 크기도 매우 커 힘껏 종을 움켜쥐어 용이 가진 강력한 힘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다.



견암사명 고견사종, 1630년



보광사종, 1634년

<용뉴 비교>



건암사명 고견사종, 1630년



보광사종, 1634년

<용머리에 새겨진 王자 비교>

용트림하는 쌍룡은 서로의 몸체를 휘감아 올라가며 여의주를 감싸고 있다. 쌍룡의 용트림치는 몸체의 중간 부분에는 공간을 마련하여 범종을 걸 수 있게 만들었다. 여의주를 다투는 쌍룡은 중앙의 가장 꼭대기 부분에는 금강(金剛) 형상을 모은 오고저(五鈷杵)를 배치하고 있다. 쌍룡의 발 사이에는 주조 시 용탕의 주입구인 약간 도드라진 원형이 남아 있다.



건암사명 고견사종, 1630년



보광사종, 1634년

<오고저 비교>

이렇게 쌍룡은 발톱이 다섯 개인 오조룡(五爪龍)은 조선 왕실에서는 국왕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국왕에만 해당되는 문양인데, 불교 범왕의 상징성에 걸맞은 표

현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종뉴의 쌍룡 표현이나 세부 묘사 및 조각적 솜씨가 매우 탁월하다.

3-2) 종신의 형식과 세부 문양

보광사 범종의 쌍룡 종류 아래 복련대 일부에는 주성 시 형틀이 흔들린 흔적과 함께 상하 형틀의 분리선이 남아 있어 당시의 주조방법을 시사해준다.

범종의 종신 외형선은 볼록하고 꼭대기부터 치마 옆처럼 흘러내려 오다가 종복(鍾腹)에 이르러서 구연부를 향해 다소 벌어지며 하강하는 선형을 보인다. 종신은 몸체 중단에 둘러진 세 줄의 굵은 횡선을 기준으로 상하단으로 구분된다.



<파주 보광사 동종 용뉴 천판 아래 복연판> <파주 보광사 동종 상대의 연곽대와 진언, 불보살상>

구획된 상단에는 중앙에 연꽃 줄기와 봉우리가 길쭉하게 표현된 넓은 연판문, 내부에는 만개한 연꽃좌 중앙에 작은 돌기가 표현된 9개씩의 연뢰를 도톰하게 부조하였다. 연곽대에는 연화당초문, 당초문을 배치한 사다리꼴 연곽, 다양한 형태의 합장형 불보살상, 실담문자로 표기한 ‘파지옥진언’, ‘육자대명왕진언’ 범자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장식문양을 배치하고 있다. 하단에는 상단에 비해 비교적 간략한 구성이지만, 동종의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재된 주종기를 비롯하여, 수과문, 운룡문, 연화당초문 등을 장식하고 있다.



<과주 보광사 동종 상대의 사다리꼴 연곽대와 범자, ‘파지옥진언’, ‘육자대명왕진언’ 불보살상>

<과주 보광사 동종의 사다리꼴 유곽의 실측 치수>



<과주 보광사 동종의 보살상 실측 치수>

3-3) 상단의 범자와 진언 및 문양

쌍룡이 배치된 천판 아래쪽 복련판이 있고, 종신의 세 줄을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된다. 상단에는 사다리꼴의 연곽대를 배치하였고, 그 안쪽에는 9개의 연꽃좌 위의 자그마한 연좌 꼭지, 연곽대에는 연화당초문과 당초문을 배치하였다. 연곽과 연곽의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불보살상을 중심으로 범자와 실담문자로 표기한 ‘파지옥진언’, ‘육자대명왕진언’을 배치하고 있다. 4구의 보살입상은 원형 두광에 통견의 대의를 걸치고 합장한 모습으로 연화좌 위에 시립한 채 몸을 우측으로 돌린 자세이다.

설봉 천보가 발원한 범종에는 범종의 범자(梵字)가 새겨지는데, 양천목(梁天目)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에 표현된 실담문자이다. 이러한 범자는 문양판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종신 자체에 고부조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양천목이 1595년 제작한 <금사사 범종>에는 지장보살이 표현되어 있고 육자대명

왕진언인 ‘반메흠’을 시문하였다. 이 점은 육자대명왕진언 신앙이 지장보살의 신앙을 포함한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금사사 범종, 1595년>

<견암사 범종, 1630년>

<보광사 동종, 1634년>

1634년 제작한 보광사 동종은 1630년 견암사 범종의 범자와 위치 및 장방형의 한자진언문의 사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징적인 것은 <보광사 동종>의 연곽의 상부에 위치한 곳에 조선시대 범종 중 처음으로 란차문자 범문을 사용하여 우측 방향으로 육자대명왕진언이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란차문자는 데바나가리문자를 변형시킨 범자체로서 각문이나 서적의 표지 제목 등에 주로 쓰였으며 장식성이 강한 범자체이다. 란차문자 범자 아래에는 실담문자로 된 육자대명왕진언과 과거 육진언의 범자를 2~3자씩 배치하였다. 따라서 설봉 천보는 동일한 진언이라도 란차문자라는 새로운 범자체를 도입하였으며, 란차문자의 구성에 맞게 실담문자 범자를 그 아래에 배치하는 등의 독창성이 돋보인다. 곧 란차문자 범자의 사용은 고려시대 1346년 원나라 장인이 제작한 연복사범종에서 확인되는데, 우리 조선에서 활동한 주종장 중 란차문자 범자를 처음으로 사용한 주종장은 1634년 <보광사 동종>을 제작한 설봉 천보라고 할 수 있다.



<보광사 동종 하단부 정면>



<보광사 동종 하단부 우측면>



<보광사 동종 하단부 배면>



<보광사 동종 하단부 좌측면>

이처럼 범자는 현세구복 및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을 적극적으로 발현하는 장엄 요소이다. 주종장이 명시된 조선 전기의 범종은 왕실의 진언신앙을 통해 왕실 내 승려가 진언을 독송하는 법회가 열거나 왕이 직접 진언법회를 열 때 범보로 생각하는 인식에서 확인된다. 특히 17세기에 들어 승장 설봉 천보는 선이 유려한 실담문자로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의 범자가 표현되는 공통양상이 보인다. 특히 천보는 왕실발원범종의 영향을 받아 동일한 표현 방식과 제작기법 및 실담문자 범자와 관차문자 범자를 사용하여 이후 그들만의 특징적인 한자진원문의 표현이 확인되어 전통성이 유지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에 배치한 주성과 관련된 銘文帶에 雲龍紋이 표현되었고 下帶에도 雲龍紋과 水波紋이 복합적으로 시문되었다. 이렇게 파주 보광사 범종은 이전까지 왕실발원의 통제 속에서 새겨지던 형태나 문양에서 자유롭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하단 주종기 아래의 문양을 보면 종신 몸체 중단에 둘러진 3줄의 굵은 횡선을 기준으로 상하단으로 구분하였다.

종신 하단에는 간략한 구성이지만, 하대와 하대띠장식 사이의 공간에는 오조룡한 마리와 범종의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주성내력을 알려주는 명문이 양각되어 있다. 기재된 주종기가 배치되어 있고, 그 밖에 수파문(水波文)을 비롯하여,

운룡문, 연화당초문 등을 장식하고 있다. 용기선 횡대 아래의 하단부에는 유려한 모습의 운룡문이 고부조로 장식되었고, 이 운룡문으로 이루어진 문양판 사이로 긴 내용의 양각 명문을 새겼다. 아래 단에는 줄의 용기선을 두르고 하대처럼 표현된 종구의 윗부분에 파도문과 운룡문을 번갈아 가며 뺄뺄이 장식하였다.



<金沙寺鐘, 1595년, 총 높이 97.2cm,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奉先寺銘懸燈寺鐘, 1619년, 총 높이 77×59cm,
보물, 경기 가평 현등사 소장>

3-4) 양식 비교

과주 보광사의 동종은 17세기 전반의 범종 가운데 중국종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서, 이를 제작한 설봉 천보는 이 시기에 여러 점의 범종을 만든 것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설봉 천보가 주성한 범종 중 현존하는 것은 모두 4점이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595년 황해도 장연 금사사 범종이고, 1619년 가평 현등사 범종, 1634년 거창 고전사 범종, 1634년 과주 보광사 승정칠년명 동종 등이다.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는 1595년 황해도 장연 금사사 범종은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주물공 양천목(梁天目)이 무게 200근으로 이 종을 만들 때 명문의 내용을 작성하는 찬술자로 참여하였다. 이 종은 높이 118cm로 비교적 아담하고 단정하며, 그 형태는 일정한 너비를 가지고 아래로 흘러내리며 아래쪽에서 벌어진 느낌이다. 종의 머리에는 용 두 마리가 용트림하는 모습인데

한 마리의 용머리는 파손되어 있다. 종의 상대에는 연꽃 무늬가 중대에는 보살상과 연꽃이, 하대에는 두 줄의 넝쿨무늬가 있다. 아직 북한에서는 이 유물이 국보나 준국보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



<見岩寺銘古見寺鐘, 1630년, 총 높이 97.2cm, 보물, 거창 古見寺 소장>



<파주 보광사 범종, 1634년>

한편 천보는 1619년 <봉선사명 현등사 범종>을 제작하는 데에 화주로서 참여하였다. 봉선사는 효령대군의 농장에 있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천보는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명문에 ‘化主天寶謹作書刻’로 기록되어 있어 명문 작성에 활동하였고 그밖에 玄玉, 正會, 大元, 瑩仁이 동반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천보는 활동 범위를 경상도까지 넓혀 거창군 고견사까지 내려가 緇竹 및 得男과 함께 1630년 <見岩寺銘古見寺鐘>을 제작하였다.

1630년 거창 고견사 소장 범종은 17세기를 대표하는 설봉 천보의 작품이다. 그는 ‘圖大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라는 명칭으로 緇竹, 得男, 得一과 함께 1630년에 古見寺鐘을 제작하였다. 雪峯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古見寺鐘으로서 검은 색조에 전체적인 외형은 한국 전통종 보다 중국종 계열을 따른 전형적인 작품이다. 불룩하게 원구형으로 솟아오른 천관 위로는 음통 없이 두 마리의 쌍용으로 구성된 용뉴와 그 바깥의 주위에는 사각으로 된 복판의 연화문을 上帶처럼 둥그렇게 시문하였다. 종 몸체 중단에 둘러진 3줄의 용기선 횡대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나누어 윗 단에는 위로부터 연판문대와 사다리꼴로 이루어진 연곽대, 범자문과 대좌 위에 앉은 佛坐像을 번갈아 가며 시문한 모습이다. 특히 불좌상 옆으로 위패

형의 범자문대를 두고 그 옆에 ‘六字光明眞言’과 ‘破地獄眞言’이란 문구를 도드라지게 새긴 것은 이후 조선 후기 범자 다라니의 선행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 종신의 중단 아래로는 역시 3줄의 용기선을 둘러 3구로 구획하였는데 바로 아래에는 蓮唐草文帶를 둘러쌌다. 그리고 그 아래로 종신 전면을 돌아가며 긴 내용의 양각명이 새겨져 있으며, 이 명문구 아래로 다시 1줄의 용기선을 둘러고 鐘口에서 조금 떨어진 상부 쪽으로 파도문과 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는 격동적인 모습의 용무늬를 번갈아가며 뺄뺄이 시문하였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엽까지 활약한 설봉 천보가 주성한 범종은 중국종과 전통종의 형식이 혼합되는 혼합형 종의 널리 만들어지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혼합형은 첫째 용뉴에 두 마리의 쌍룡으로 장식되고, 종신의 상부에는 상대 없이 梵字文이 둘러지는 예가 많다. 둘째 종신의 중단 쪽으로 내려와 연곽을 배치하고 이 안에 꽃 모양의 연봉오리[蓮蕾]를 장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당좌와 하대는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기적으로 17세기 범종의 경우 종구 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 하대처럼 문양대를 장식한 예가 많고 18세기 범종은 옥천사종(1776), 신륵사종(1773)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대가 표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용뉴의 형태상 쌍룡을 지닌 선암사종(1700), 청계사종(1701), 명주사종(1704), 도림사종(1706), 옥천사 대웅전종(1708), 천은사종(1715) 등이 이 부류에 속하는 작품이다. 이 가운데 청계사종과 영국사종은 17세기에 제작된 선암사 대각암종(1657)과 능가사종(1698)의 용뉴처럼 정상 천개 위쪽 부분에 두 마리의 쌍룡이 서로 쟁취하는 독특한 모습을 갖춘 예이지만 앞 시기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양이나 종신 전체를 빠짐없이 장식하는 모습은 이미 고려 후기의 연복사종(1346)에서부터 보이던 중국종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지만 연판문, 중대의 보상화당초문, 하대의 파도문 등은 조선 전기 해인사 대적광전종(1491)의 문양을 계승하거나 약간 변형시킨 모습이다. 천보는 1634년 보광사종을 제작할 때 조역으로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등의 장인을 이끌고 제작한 점에서 17세기 전반의 승장 사회를 이끌었던 우두머리 장인이다.

무엇보다도 천보가 주성한 현존하는 4기의 범종 중 파주 보광사 범종이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이다. 설봉 천보가 제작한 범종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쌍룡의 종뉴를 매우 크고 역동적으로 조각하며, 종신에 굵은 횡선을 이용하여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고 그 내부 공간에 연화당초문, 사다리꼴의 연곽, 불보살입상과 함께 다양한 내용의 범자 그리고 수파나 구름 속에 생동감 넘치게 표현된 용문을 표현하며 긴 내용의 명문을 양각으로 새긴 것이 공통점이다.

이러한 1634년 보광사 범종의 외형적 특징은 조선 전기인 15세기에 제작된 동종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서 1469년 남양주 봉선사 범종, 1491년 해인사 범종 등에

서 그 선행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이후 1644년 담양 용흥사 동종, 1698년 고흥 능가사 동종 등 17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제작되는 종의 제작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이 확인된다.

천보의 작품 가운데 1619년 가평 현등사 동종, 1630년 거창 고견사 동종 두 작품은 이미 국가에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다. 파주 보광사 승정칠년명 동종은 크기 면에서도 고견사 종과 거의 유사하고 문양에서는 오히려 다른 종들보다 훨씬 고부조로 표현된 생동감이 느껴진다.

이처럼 1634년 보광사 동종은 한눈에도 조선 초기 범종양식을 따른 외래형의 종으로서 17세기 전반에 천보라는 뛰어난 승장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초에 왕실에서 주성한 홍천사종이나 보신각종, 낙산사종, 봉선사종처럼 한국종의 특징인 음통 대신 중국종의 특징인 쌍룡의 종뉴와 종신에 띠장식대를 갖추고 있어 전형적인 외래유형에 속한다. 때문에 17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승장인 천보가 제작한 파주 보광사 동종을 비롯한 양식적 특징은 17세기 후반에 전라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장들인 김용암이 만든 담양 용흥사종이나 선암사종 및 김애립이 만든 고성 운흥사종이나 능가사종으로 계승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범종 연구의 자료적 가치 또한 매우 크다.

○ 문헌자료

<坡州 普光寺 崇禎七年銘 銅鍾銘文>

有明朝鮮國楊州地高嶺山普/ 光寺新鑄寶鐘銘序/ 竊聞此寺高麗時道詵國師爲/ 國家碑補營刹也及於我朝大/ 明萬曆二十年壬辰兵燹蕩盡/ 爲摩鹿所居久矣越三十年壬/ 寅海西僧雪眉湖西僧德仁始/ 入茲墟吁然嘆息名利之爲丘/ 墟不可不復雪眉創法堂德仁/ 創僧堂由是四方賢師雲集一/ 場百事什物無欠前美而唯厥一/ 鐘仁師痛念無已崇禎辛未/ 意欲成鐘勸立道元老僧三/ 年僅募艱得八十斤青銅成/ 之不果獻寺以退今化主信寬/ 海西僧也癸酉七月繼道元而/ 立乃首僧學岑之勸也時寺/ 衆二十員等皆力助焉別座/ 智什仁師之弟子也休仁師之/ 念盡誠竭力無厭色之嗚呼/ 斯人之誠茲寺之成可銘於/ 鐘也已蓋鐘者非特金石絲/ 竹匏土草木八音之類也擊之/ 大則其聲大擊之小則其聲/ 小亦可以警幽鬼也請余鑄鐘/ 不獲辭而銘云/ 佛之尊德未知何相淨清寂滅/ 利他爲常亦有慈靈所願皆/ 應人人崇佛欲得福命毀補如夢/ 達惑可分眉仁寬輩三生願種/ 至此俱欠化佛道融神與渡人/ 請余作鐘時時警擊滅惡善/ 崇積若成物萬歲長雄/ 崇禎七年甲戌七月日鑄重三百/ 餘斤/ 同參秩/ 大功德主申銀福兩主/ 李今連兩主劉彥弘/ 辛天立 朴春茂 元賢/ 本寺助緣秩/ 彥機 天玉 靈玉 德仁/ 學岑 丹湜 英湖 玉圭/ 雙一 戒旭 印全 應成 雪岩/ 信宗 善岑 允明 惟惠/ 楚英 惟洽 眞機 法厚/ 妙淨 學淨 弘信 信瑛/ 法輝 可文 學敏 志堅/ 同參秩/ 李長守/ 女青非 女同玲 嚴於屯/ 楊龍 林從希 尹丕金/ 朴

同石 金海龍 金均男/ 金信男 吳芑屎 朴太福/ 緣化秩/ 敬暹/ 鑄成曷大匠彌智山雪峯
子 天寶/ 助役 尙倫 善岑 敬立/ 別座 智什 供養主緇境/ 幹善勸化主比丘信寬/ 步居
士 智仁吉 趙丹孫/ 義悅 信浩 妙信 惟昔/ 景學 一珠 一還 法淨/ 應性 聖賢

조선 양주땅 고령산 보광사에서 새롭게 주조한 보배로운 종에 새기는 글
듣기에 이 절은 고려 때 도선국사가 국가의 비보로 경영하기 위해 세웠다고 하나,
조선에 들어와 만력 년(1592) 임진병화로 모두 전소되어 사슴의 놀이터가 된 지가
오래이다. 만력 30년 임인(1602)에 해서의 스님 설미와 호서의 스님 덕인이 이 터
에 처음으로 들어와 보고 이름난 사찰이 언덕이 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탄
식하였다. 설미가 법당을 세우고 덕인은 승당을 세우니 비로소 사방의 훌륭한 선
사들이 운집하였다. 온갖 물건들이 한꺼번에 전과 다름없이 갖추어졌으나 종 하나
가 빠져 덕인 스님의 애석함은 끝이 없었다. 승정 신미(1631)에 종을 만들려고 노
스님 도원을 추대하여 3년 만에 간신히 청동 80근을 모았지만 종을 만들어 사찰
에 바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지금의 화주 신관은 해서의 승려로 계유(1633) 7월에
도원을 이어 자리에 올랐는데 이는 수승인 학잠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이때 절에
승려 20여 명이 모두 힘을 써 도왔다. 별좌인 지십은 덕인의 제자로 덕인의 염원
을 받아 정성을 다하였고 싫어하는 내색이 없었다. 아, 이 사람의 정성으로 이 절
에서 만들어져 종에 글을 새길 수 있게 되었다. 얹어져 있는 종은 금속, 돌, 실,
대나무, 바가지, 흙, 가죽, 나무 등 8가지 종류의 소리가 아니다. 크게 치면 그 소
리가 크고 작게 치면 그 소리가 작으며 귀신을 경계할 수 있다. 내게 씻물을 붓기
를 청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글을 짓는다.

부처의 높으신 덕을 어찌 서로가 모르겠는가.
청정적멸로 항상 남을 이롭게 하신다.
자비와 영험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감응하시니,
사람들마다 부처를 섬기고 복을 얻고자 한다.
헐어졌던 것이 채워져 마치 꿈과 같지만
달음과 미혹이 구분되어,
설미, 덕인, 신관의 무리가 삼생의 서원을 심을 수 있었다.
이에 부족하지만 불법이 어우러졌으니,
신이 건너와 나에게 종을 만들라 청하였다.
지나가는 시각 시각마다 처서 경계하고 악을 없애 선을 높이니,
완성품이 쌓여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으뜸이 되리라.

승정 년월 일 무게 300여 근으로 종을 만들다.

동참질 대공덕주 신은복 양주 이금련 양주 유언홍 신천립 박춘무 원현
 본사조연질 언기 천옥 영옥 덕인 학잠 단식 영호 옥규 쌍일 계옥 인전 응성 설암
 신중 선잠 윤명 유혜 초영 유헌 진기 범후 묘정 학정 홍신 신영 범휘 가문 학민
 지건
 동참질 이장수 여청비 여동령 엄어둔 양용 임종희 윤돌금 박동석 김해룡 김균남
 김신남 오돌시 박태복
 연화질 경섬 주성비대장미지산설봉자 천보 조역 상륜 선잠 경립 별좌 지십
 공양주 치경 간선권
 화주 비구신관 평보거사 지인길 조단손 의열 신호 묘신 유석 경학 일주 일환 범
 정 응성 성현

○ 참고문헌

- 김수현, 「朝鮮後期 梵鍾과 鑄鍾匠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아름, 「1898년 파주 보광사 불사와 불화」, 『마한백제문화』 39, 2022.
- 노정옥, 「한국 梵鍾 龍鈕조형 양식고찰」,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8.
- 박태준, 「파주 보광사 감로탱 내의 중단(감로단) 연구」, 중앙승가대 석사학위 논문, 2022.
- 안귀숙, 「朝鮮後期 梵鍾의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2.
- 정문석, 「朝鮮時代 僧匠系 梵鍾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 정문석, 「조선시대 梵鍾을 통해 본 梵字」, 『역사민속학』 36, 2011.
- 최응천, 「조선 후반기 제1기(광해군-경종대) 불교공예의 명문과 양식적 특성 연구」, 『강좌미술사』 38, 1993.
- 최응천, 「普光寺의 佛敎法具」, 『聖寶』 1, 大韓佛敎曹溪宗 聖寶保存委員會, 1998.
- 황인규, 「파주 보광사의 역사와 위상」, 『대각사상』 12, 2009.



○ 현 상

<파주 보광사 동종>은 현재 경기도 파주 보광사 대웅보전에 보관되어 있으며, 1995년 8월 7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높이 94.9cm, 입지름 64.1cm의 크기로 종鈕(鐘紐)와 종신(鐘身)이 완형을 이루고 있으며, 종신의 문양과 명문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종신의 명문에 따르면, 임진왜란으로 피해를 입은 보광사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1634년(인조 12) 7월 신관(信寬)이 화주가 되어, 천보(天寶)를 중심으로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등이 청동 3백근을 들여 종을 제작하였다고 전한다. 보광사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종은 현재까지 그대로 봉안되어 있어, 유물의 제작에 관한 내역과 소장 경위가 명확하다.

○ 내용 및 특징

<동종의 외형과 양식>

<파주 보광사 동종>의 종뉴는 쌍룡(雙龍)으로 두 마리의 용이 고리를 이루고 음통은 보이지 않는다. 음통은 통일신라 범종부터 나타나는 한국종의 주요한 특징이며, 종뉴도 한 마리 용의 모습으로 만든다. 음통이 없고 쌍룡의 용뉴로 나타나는 범종은 중국종의 형식이며, 고려 후기 원에서 유입된 외래형 범종에서 시작되어 조선 초기에 다수 제작되었다.

보광사 동종의 쌍룡은 두 개의 뿔이 있고 발가락은 다섯 개인 오조룡(五爪龍)이며,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엉켜있는 모습으로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종을 매달 수 있게 하였고 맨 윗부분에는 여의주를 감싸고 있다. 용의 표정과 몸체의 묘사, 생동감 있는 표현 등에서 우수한 조각 솜씨를 볼 수 있다.

종의 몸체는 세 줄로 만든 횡대를 둘러 상단과 하단을 분리하였다. 상단에서 천판의 바로 아래인 어깨 부분에는 복련(覆蓮)의 상대(上帶)가 있다. 상대 일부는 일정하지 않은 문양 표현이 확인되고 형틀이 분리된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당시 주조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상대 아래에는 연곽과 합장보살입상 4구를 번갈아 배치하였다. 연곽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이며, 연화당초문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안에는 만개한 연꽃 9개를 화려하게 꾸며놓았다. 보살상은 원형의 두광에 통견(通肩)의 법의를 걸치고 오른쪽을 향해 서 있으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모습이다. 보살상의 좌우에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과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이 한 글자씩 크게 자리하고 있다.

하단의 윗부분은 한 마리의 용이 구름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조성 내력을 기록한 명문이 양각과 선각으로 표기되었다. 그 아래로 파도문과 용이 교대로 등장하는 하대(下帶)가 있는데, 종의 구연부 조금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단의 위아래로 등장하는 용은 공간에 어울리게 도안되었고 구불구불한 신체의 움직임은 역동적이며, 하대의 파도문은 섬세하게 묘사되었다.

보광사 동종은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와 종의 몸체를 횡대로 구분하는 특징이 대표적인데, 이는 조선 초기에 성행한 외래형 종의 양식과 연결된다. 조선 초기 왕실에서 발원한 <홍천사명 동종>(1462년, 세조 8), <옛 보신각 동종>(1468

년, 세조 14년), <남양주 봉선사 동종>(1469, 예종 1), <낙산사 동종>(1469, 예종 1) 등은 모두 쌍룡의 종뉴와 종신에 횡대가 있는 중국종에서 비롯된 유형이다. 이처럼 외래형 범종이 유행한 이후, 전통형 범종과 외래형 범종, 양쪽의 특징을 공유한 새로운 유형 등 조선시대 동종은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보광사 소장품은 외래형을 계승한 범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종의 명문 내용과 장인>

<과주 보광사 동종>의 종신 하단에는 주종기(鑄鐘記)가 있어, 범종의 제작에 관한 여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명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有大明朝鮮國楊州地高嶺山普」 光寺新鑄寶鐘銘序」 竊聞此寺高麗時道詵國師爲」 國家碑補營刹也及於我朝大」 明萬曆二十年壬辰兵燹蕩盡」 爲摩鹿所居久矣越三十年壬」 寅海西僧雪眉湖西僧德仁始」 入茲墟吁然嘆息名刹之爲丘」 墟不可不復雪眉創法堂德仁」 創僧堂由是四方賢師雲集一」 場百事什物無欠前美而唯厥一」 鐘仁師痛念無已崇禎辛未」 意欲成鐘勸立道元老僧三」 年僅募艱得八十斤青銅成」 之不果獻寺以退今化主信寬」 海西僧也癸酉七月繼道元而」 立乃首僧學岑之勸也時寺」 衆二十員等皆力助焉別座」 智什仁師之弟子也体仁師之」 念盡誠竭力無厭色之嗚呼」 斯人之誠茲寺之成可銘於」 鐘也已盖鐘者非特金石絲」 竹匏土草木八音之類也擊之」 大則其聲大擊之小則其聲」 小亦可以警幽鬼也請余鑄鐘」 不獲辭而銘云」 佛之尊德未知何相淨清寂滅」 利他爲常亦有慈靈所願皆」 應人人崇佛欲得福命毀補如夢」 達惑可分眉仁寬輩三生願種」 至此俱欠化佛道融神與渡人」 請余作鐘時時警擊滅惡善」 崇積若成物萬歲長雄」 崇禎七年甲戌七月日鑄重三百」 餘斤」 同參秩」 大功德主申銀福兩主」 李今連兩主劉彥弘」 辛天立 朴春茂 元賢」 本寺助緣秩」 彥機 天玉 靈玉 德仁」 學岑 丹湜 英湖 玉圭」 雙一 戒旭 印全 應成 雪岩」 信宗 善岑 允明 惟惠」 楚英 惟洽眞機 法厚」 妙淨 學淨 弘信 信瑛」 法輝 可文 學敏 志堅」 同參秩」 李長守」 女靑非 女同玲 嚴於屯」 楊龍 林從希 尹丕金」 朴同石 金海龍 金均男」 金信男 吳丕屎 朴太福」 緣化秩」 敬暹」 鑄成曷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 助役 尙倫 善岑 敬立」 別座 智什 供養主緇境」 幹善勸化主比丘信寬」 (以上 陽刻)

平步居士 智仁吉 趙丹孫」 義悅 信浩 妙信 惟昔」 景學 一珠 一還 法淨」 應性 聖賢」 (以上 線刻)

명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려시대 도선국사의 비보로 고령산 보광사를 세웠다고 하였다. 이후 조선시대 들어 1592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사찰이 모두 전소되어 폐허가 되었다. 시간의 흐르고 사찰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동종의

제작은 늦어졌고 1634년에 이르러 완성하게 되었다. 당시 해서 지역(지금의 황해도)의 승려 신관을 새롭게 화주로 선정하였고 사찰 내 승려 20여 명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승장(僧匠) 천보(天寶)가 상륜(尙倫), 선잠(善岑), 경립(敬立) 등의 보조를 두고 승정 7년 3백근을 들여 종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도 기재되었다. 동종의 제작연대와 목적,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와 후원자, 장인과 재료 등 중요하고 다양한 내역이 명문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특히 ‘鑄成晁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를 주목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주종장의 직명과 이름이 나타난다. 설봉자 천보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활약한 승장으로, 다수의 동종을 제작하였다. <황해도 장연 금사사 동종>(1595, 북한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가평 현등사 동종>(1619), <거창 고전사 동종>(1630), <함경도 안변 석왕사 동종>(1633, 현재 소실) 등 보광사 동종(1634)을 포함하여 5점이 알려져 있다. 범종의 봉안처는 대체로 황해도와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어, 천보가 활발하게 활동한 지역을 추정할 수 있다.

천보의 동종은 대체로 음통이 없는 쌍룡의 종뉴를 갖추고 있으며, 종신은 가운데 세 줄의 횡선을 둘러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였다. 또한 불보살상의 외형, 실담문자로 표기한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 화려하게 장식한 운룡문, 연화문, 수과문 등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천보는 외래형 범종의 계통을 잇는 승장이며, 종신을 호화롭게 장엄하기 위하여 역량을 발휘했던 장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광사 동종은 지금까지 알려진 천보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제작된 유물이다. 종뉴와 종신의 하단에 등장하는 용은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면서, 역동적인 조각과 생동감 있는 부조의 표현을 보여준다. 유려한 모습으로 서 있는 보살상과 연화문, 당초문, 수과문 등에서도 장인의 재능과 솜씨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천판과 상대 일부에 나타나는 주조의 결함은 유례없는 전란을 복구하는 17세기 전반이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결점은 <가평 현등사 동종>과 <거창 고전사 동종>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으로, 당시의 여건과 사정을 참고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최웅천, 『한국의 범종, 천년을 이어온 깨우침의 소리』, 미진사, 2022.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범종』, 1996.
- 정문석, 「朝鮮時代 僧匠系 梵鍾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 김수현, 「朝鮮後期 梵鍾과 鑄鍾匠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최웅천, 「普光寺의 佛敎法具」, 『聖寶』 1, 대한불교조계종 성보조보존위원회, 1998.

- 안귀숙, 「朝鮮後期 梵鍾의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2.



○ 내용 및 특징

과주 보광사는 高嶺山에 자리한 사찰로,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창건은 신라 진성여왕 8년(894) 왕명에 의해 도선국사가 비보사찰로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1215년에는 원진국사의 중창하였고, 1388년에는 무학대사가 중창하였다. 임진왜란 때 전란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 1622년 雪眉, 德仁 두 스님이 법당과 승당을 복원하고 도솔암을 새롭게 지었으며, 1634년 동종이 제작되었다. 1740년 사찰 인근에 영조의 친모인 숙빈 최씨를 안장한 소령원의 능침사찰로 지정되어 왕실 원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 결과 조선 말까지 흥선대원군과 고종, 명성황후 등 왕실의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도 1. 과주 보광사 동종, 1634년, 천보 작>



<도 2. 가평 현등사 동종, 1619년, 천보 작>

과주 보광사 동종은 1634년 鑄成圖大匠 彌智山 雪峯子(天寶)를 필두로 尙倫, 善岑, 敬立 등의 주종장이 참여하여 제작한 종이다. 주성도대장으로 등장하는 미지산 설봉자는 1595년에 제작된 장연 금사사 동종(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의 종신에 새겨진 명문의 찬자(彌智山雪峯沙門天寶謹撰書)로 처음 등장한다. 현등사 동종 명문에는 ‘化主天寶謹作…’이라고 찬문을 지었고, 거창 고견사 동종에는 ‘彌智山雪峯沙門天寶述…緣化秩 畧大匠彌智山雪峯沙門天寶’라고 적혀 있어 찬문을 짓고 종을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천보 이후 등장하는 승려 주종장으로는 남원 대복사 동종(1635년)과 부여 무량사 동종을 제작한 정우와 포항 보경사 서운암 동종(1667

년) 등 8점의 작품을 남기고 있는 사인비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천보는 17세기 전반기 승려 주종장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도 3. 거창 고건사 동종, 1630년, 천보 작, 보물> <도 4. 안변 석왕사 동종, 1633년, 천보 작, 현재 망실>

설봉자 천보의 범명 앞에 수식어로 등장하는 미지산은 양평 용문사가 있는 용문산과 같은 산으로, 그는 미지산을 본거지로 해서 활약했던 승려로 판단된다. 예로부터 미지산 일원에는 보리사(원경대사탑비), 용문사, 사나사(원증국사 석종비), 상원사 등 수 많은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와 더불어 많은 고승대덕들을 배출되었다.

과주 보광사 동종은 17세기 전반기 승장으로 활동한 설봉 천보의 작품으로 확인된다. 현재까지 설봉천보의 작품은 거창 가평 현등사 동종(1619년), 고건사 동종(1630년) 등 국내에 3점이, 북한 금사사 동종(1595년)²⁹⁷, 안변 석왕사 동종(1630년, 현재 망실) 1점을 포함하면 모두 5점이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시기적으로 천보의 마지막 작품에 해당한다.

천보의 종의 특징은 종의 어깨부분을 기준으로 상하와 용뉴를 틀을 이어 붙여 구조하는 분할구조법을 택하고 있다. 아마도 상단부의 복잡하고 섬세한 용뉴부분의 구조 결함을 최소화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결론적으로 완전한 구조 이어지지 못하고 어깨부분에 구조 결함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구조 결함은 극복하지 못하고 그가 제작한 가평 현등사 동종과 거창 고건사 동종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이 종은 천보작으로 알려진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종의 몸통 가운데를 3개의 용기선을 돌려 상하를 나누었다. 천판의 상부는 두 마리 용이 서로 몸통을 꼬아

297) 현재 금사사 종은 1595년 작으로 알려져 있으나(『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조선시대편) II,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67쪽), 종의 양식이 1619년의 현등사 종보다는 거창 고건사 동종이나 보광사 동종에 가까워 명문과 양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으로 종뉴가 만들어졌는데, 천판의 대부분을 여백 없이 용뉴로 채웠다. 종의 상대에는 연판문을 돌려 장엄하였다. 연판문 바로 아래에는 4개의 사다리꼴의 연곽대와 9개의 연뢰, 연곽대와 연곽대 사이의 공간에는 육자대명왕진언(란차문자)와 파지옥진언(실담문자), 그리고 4구의 합장 보살입상을 배치하였다. 종의 배에는 3줄의 용기선대를 돌리고 그 아래 운룡문과 명문을 배치하고 다시 그 아래로는 운룡문과 파도문을 번갈아가며 배치하여 하대를 이루고 있다. 고려 이전의 종과 달리 하대가 종의 입구에 붙어서 마련되지 않고 약간 위쪽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불룩하게 솟은 천판의 형태에 용뉴도 상응하고 있는데, 두 마리 용이 서로 몸을 꼬아 용뉴를 형성하고 있다. 뒷발은 하늘을 향해 들어 여의주를 다투고, 앞발은 천판을 힘차게 내던져 종을 들어 올리는 역동적인 모습이이며 오조룡으로 표현되었다. 천판과 연결되는 종의 어깨에는 3점의 내림연판무늬로 장엄하였는데, 가장 안쪽의 연판은 고사리모양의 머리를 맞대어 마무리하고 표면에는 이슬방울이 또르르 굴러 떨어지듯 표현한 점이 상큼하다. 이러한 특색 있는 내림연꽃의 표현은 이 작품 외에도 가평 현등사 동종, 거창 고건사 동종 등 천보의 작품에서 널리 응용된 표현방식이다.

연화당초무늬로 꾸며진 사다리꼴의 연곽대는 종의 가슴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는데, 모두 4곳에 배치하였다. 연뢰는 활짝 핀 국화꽃모양의 받침 위에 씨앗을 올려놓은 모양이다. 연곽대 사이에는 란차문자와 실담문자로 새긴 육자대명왕진언과 파지옥진언, 연봉을 받쳐 든 보살입상을 양각하였다. 보살입상은 늘씬한 신체비례를 갖추고 있고, 측면관을 하고 있으며 17세기 보다는 그 이전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의 배 부분에는 해서체로 반듯하게 적은 주종기와 구름 사이를 비행하는 역동적인 용이 새겨져 있다. 용은 몸을 요동치며 여의주를 희롱하며 하늘을 나는 모습이며 사실적인 모델링을 보인다. 하대에는 울동감이 넘쳐나는 파도문과 종복에 새겨진 운룡문과 크기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형태의 용이 비행하고 있다. 문양의 분할된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같은 문양판을 반복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천보가 지은 주종기에는 종을 만들게 되는 배경과 과정, 주관자, 제작자 등에 대해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이 종에서 보이는 특징, 즉 두 마리 용이 서로 몸을 꼬아 여의주를 다투며 용뉴를 야무지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나, 종의 배 가운데를 3줄의 용기선대로 구획하여 상단에는 연곽대와 보살상, 란차문자와 실담문자로 이루어진 진언을, 하단에는 운룡문과 수파문, 명문대를 배열한 형식은 1462년 홍천사명 동종, 1469년 남양주 봉선사 동종(보물), 1491년 합천 해인사 동종 등 15세기 제작된 동종 양식을 천보가 숙지하고 이를 자신의 종 양식에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그

가 활동 근거지였던 남양주 봉선사에 1469년에 제작된 동종이 유존하고 있었기에 그가 모델로 삼았던 것은 아마도 봉선사 동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천보가 만든 동종은 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둥근 곡선의 천부에서 종구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내려와 형태적으로 안감을 준다. 두 마리 교룡이 ‘^’형을 이루는 종뉴에서부터 만곡을 이루는 천관, 상대의 연판대, 上狹下廣 사다리꼴의 연곽대, 국화꽃 받침의 연좌와 꼭지모양의 연뢰, 연곽대 사이의 실담문자의 진언과 불·보살상의 배치, 종복의 세줄의 용기선대, 하대의 명문과 문양 등 시대를 불문하고 큰 틀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불좌상 대신 하여 보살입상을 배치한다든가, 진언을 추가한다든가, 운용문 대신 넝쿨문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문양대를 추가한다든가, 세부 문양의 변화를 주든가 하여 제작 시점에 작가의 변화된 제작태도와 감성이 발현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문헌자료

<坡州 普光寺 崇禎七年銘 銅鍾 銘文>

有大明朝鮮國楊州地高嶺山普
光寺新鑄寶鐘銘序」
竊聞此寺高麗時道詵國師爲」
國家碑補營刹也及於我朝大」
明萬曆二十年壬辰(1592)兵燹蕩盡」
爲摩鹿所居久矣越三十年壬」
寅(1602)海西僧雪眉湖西僧德仁始」
入茲墟吁然嘆息名刹之爲丘」
墟不可不復雪眉創法堂德仁」
創僧堂由是四方賢師雲集一」
場百事什物無欠前美而唯厥一」
鐘仁師痛念無已崇禎辛未(1631)」
意欲成鐘勸立道元老僧三」
年僅募艱得八十斤青銅成」
之不果獻寺以退今化主信寬」
海西僧也癸酉(1633)七月繼道元而」
立乃首僧學岑之勸也時寺」
衆二十員等皆力助焉別座」
智什仁師之弟子也体仁師之」
念盡誠竭(渴)力無厭色之嗚呼」

斯人之誠茲寺之成可銘於」
鐘也已蓋鐘者非特金石絲」
竹匏土草木八音之類也擊之」
大則其聲大擊之小則其聲」
小亦可以警幽鬼也請余鑄鐘」
不獲辭而銘云」
佛之尊德未知何相淨清寂滅」
利他爲常亦有慈靈所願皆
應人〃崇佛欲得福命毀補如夢」
達惑可分眉仁寬輩三生願種」
至此俱欠化佛道融神與渡人」
請余作鐘時〃警擊滅惡善」
崇積若(苦)成物萬歲長雄」
崇禎七年甲戌(1634)七月日鑄重三百」
餘斤」
同緣錄」
大功德主申銀福兩主」
李今連兩主 劉彥弘」
辛天立 朴春茂 元賢」
本寺助緣秩
彥機 天玉 靈玉 德仁」
學岑 丹湜 英湖 玉圭」
双一 戒旭 印全 應成 雪岩」
信宗 善岑 允明 惟惠」
楚英 惟洽 眞機 法厚」
妙淨 學淨 弘信 信瑛」
法輝 可文 學敏 志堅」
同參秩」
李長守」
女青非 女同玲 嚴於屯」
楊龍 林從希 尹丕金」
朴同石 金海龍 金均男」
金信男 吳丕屎 朴太福」
緣化秩」
敬遲」

鑄成曷大匠彌智山雪峯子 天寶」
 助役 尙倫 善岑 敬立」
 別座 智什 供養主 緇境」
 幹善勸化主比丘信寬」
 步居士 智仁吉 趙丹孫」
 義悅 信浩 妙信 惟昔」
 景學 一珠 一還 法淨」
 應性 聖賢」

○ 참고문헌

- 김수현, 「조선후기 범종과 주종장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8.
- 안귀숙, 「조선후기 주종장 사인비구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 9,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8.
- 최응천, 「주종장 김애립의 생애와 작품」, 『미술사학지』 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3.
- 최응천, 「보광사 불교법구」, 『성보』 1, 대한불교조계종 성보조보존위원회, 1998.



○ 현 상

현재 사찰 대웅전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보광사 동종>은 1995년 8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제작 후 원 봉안처를 떠나 이운(移運)된 사례가 많았던 다른 범종들과는 달리 애초에 보광사 승려들을 주축으로 발원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상태 그대로 원 봉안처에서 잘 보전된 범종으로 의미가 깊다. 전반적으로 상부의 부분적인 결함을 제외하면 주조의 상태 역시 훌륭하고 오랜 기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타종하며 사용된 범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상부 결함은 제작 당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계획한 문양을 추가로 정성껏 새겨 넣어 주조 시 결함을 보완하고자 했던 의지가 엿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쇠물을 부어 만드는 범종 제작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만큼 완성도 높은 범종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많은 범종들에도 이러한 주조 결함은 다수 확인된다. 힘든 제작 과정과 필수적인 재료의 수급조차 힘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타종하여 소리를 내는 범종의 고유한 기능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외관상의 부족함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도하게 크게 자리한 상부의 용뉴와 둥글게 솟은 천판으로

인해 육중한 상부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큰 종신의 외형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균형으로 종의 전체적인 미감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진다. 종신 표면 장엄에서는 유달리 도드라지게 양감을 드러낸 문양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장엄이 보다 선명하게 강조되고 있으며 명문의 글자 역시 정확히 판독될 만큼 정성을 들여 주조한 면모가 훌륭하다. 종신의 넓은 공간을 당시 신앙적으로 상징성을 함축하고 있는 다양한 문양으로 충전하면서도 여백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번잡하고 복잡함보다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 돋보이는 한국미의 특질 역시 겸비하고 있다. 종을 타종하는 당좌(撞座)를 두지 않은 관계로 타종은 종신의 하단부를 치게 되는 방식이며 이를 위해 하단부의 두께를 다른 부위에 비해 두 배 정도 두껍게 주조하여 기능성을 강화한 면 역시 탁월하다.



<도 1. 파주 보광사 동종, 1634년>

○ 내용 및 특징

예로부터 한국 범종의 독창성은 통일신라시대 <상원사종(725년)>과 <성덕대왕신종(771년)>에서 간취되는 향아리형 종신과 한 마리의 용뉴, 음통, 여백을 강조한 종신의 아름다운 장엄과 함께 은은하고 멀리 울려 퍼지는 깊은 울림에서 비롯된다. 이후 고려시대는 세련된 장식미가 돋보이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용뉴 및 입상 연판문대(立狀蓮板文帶) 등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면서 한국 범종의 장엄 요소는 더욱 다채로워진다. 조선시대 들어 범종은 15세기 왕실을 주축으로 발원된 <홍천사종(1462년)>, <봉선사종(1469년)> 등 대형의 사찰 범종들이 새롭게 제작되는 과정에서 고려 말 유입된 중국종의 요소를 수용하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은 웅장한 두 마리의 용으로 구성된 쌍룡의 용뉴 등장, 음통과 당좌가 사라지는 경향, 밀교적 성격이 짙은 육자진언(六子眞言_옴마니반메훔)으로 대표되는 범자문(梵字文)의 표현,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문 등에서 살필 수 있다. 15세기 왕

실발원 범종의 영향으로 16세기 각 지방 사찰에서 제작된 중소형의 범종 역시 중앙을 지향하는 양식이 전개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곡성 태안사종(1581년)>, <공주 갑사종(1584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과 새로운 양식이 혼용되어 범종 장엄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용뉴에서 쌍룡과 단룡이 동시에 등장하고, 사라졌던 음통이 다시 표현되며, 고려 후기 범종의 특징인 천판 주변의 입상연판문대를 두르고 있는 점 등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복합적인 혼용에 있어서도 한국 범종의 고유의 여백과 안정적인 종신 미감에 대한 지향은 변치 않고 유지되며 이전 시대와는 또 다른 조선시대 범종의 조형미를 완성하게 된다.

<과주 보광사 동종(1634년)>은 그 제작 시기와 더불어 주성을 담당한 장인 설봉자(雪峯子) 천보(天寶)의 활동기간(1595~1634)을 고려해보면 15~16세기 정립된 조선 전기 범종을 계승하고 임진왜란(1592년) 이후 조선 후기 범종의 새로운 전개를 보이는 점점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천보가 장인(匠人)으로서 최고 경지에 이른 시기에 제작한 작품으로 그 완숙성까지 겸비한 작품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둥근 천판 위에 크게 자리한 쌍용의 용뉴가 압도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마리의 용은 서로 대칭해서 양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입은 천판에 접해있지만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동시에 두 다리를 힘 있게 굽혀 발로는 천판을 짚는 듯한 형상으로 웅크린 모습임에도 응축된 기운이 드러난다. 몸체는 천판의 중심에서 서로 꼬아진 형태로 얹혀 있어 역동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용뉴에서 용의 안면 표현과 역동성은 이전 시기 <갑사종(1584년)>의 용뉴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중국종의 특징인 쌍용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고려시대 용뉴에서 보이는 세밀하고 역동성 있는 용으로 표현해 위압적이고 둔중한 중국의 용과는 차별화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천보가 이 종보다 이전에 만든 <현등사종(1619년)>, <고견사종(1630년)>의 용뉴가 과도하게 몸체가 꺾이거나 종신과의 접합부가 다소 불안했던 것과 달리 한층 세련된 표현으로 전체 종신을 봤을 때 훨씬 안정적인 균형감을 갖추고 있다. 천판과 접한 상부 곡선면은 연속되는 연판문을 두르며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고 있어 천판 장식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역할로 종신과 연결되어있다. 그 표현의 디테일은 16세기 범종의 연판 장식보다는 확실히 뛰어나고 오히려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에서 보이는 수준 높은 세부 표현에 더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숙하다.



<도 2. 파주 보광사 동종 상부 장엄>



<도 3. 파주 보광사 동종 종신 장엄>

화려하지만 요란하지 않은 상부의 위엄 있는 장엄과 함께 그 아래 연속되는 종신 표면의 구성과 장엄 역시 이 시기의 범종의 대표작이라 할 만큼 예술적 성취도가 높다. 종신에는 중앙에 굵은 3조의 횡대(橫帶)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를 분명히 구분해서 공간을 구성하고 문양을 배치했다. 종신 상부엔 큰 연곽 4개와 연곽과 연곽 사이 보살입상이 주문양으로 하고 그 주변으로 크기가 서로 다른 범자문이 있다. 연곽대 내부를 충전한 넝쿨문, 연곽 안에 배치한 9개의 연뢰 표현 역시 천보의 다른 범종들 장식과 비교해 표현력이 월등히 섬세하다. 이러한 구성은 당시 인근의 왕실 발원 범종인 남양주 <봉선사종(1469년)>의 표현을 그대로 수용한 면모를 알 수 있으며, 연곽대 장식 및 보살상과 범자문의 세부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보이지만 그 구성요소에서 보이는 상호 연관성은 상당히 깊다. 보살입상을 중심으로 배치된 범자문 곁에는 <육자대명왕진언(六字大明王眞言)>과 <파지옥진언(破地獄眞言)>이라는 제목을 각각 틀로 새겨서 명확히 진언의 명칭을 알려주고 있다. 이 두 진언은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두터운 신앙층을 형성한 관음(觀音) 및 지장보살(地藏菩薩)의 대표 진언이며, 현실의 안녕과 내세의 평안을 기원하는 보살 신앙에 가장 밀접한 두 진언을 보살상과 함께 범종에 새겨 그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범자문의 표현과 상징성의 강조 역시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에서부터 정립되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유행한 장엄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파주 보광사 동종>에서 정성을 기울인 범자문과 보살상의 표현을 통해서는 조선 후기 단순한 패턴으로 도식화되어 의미조차 상실해 버리기 이전 한국 범종 표면 장엄이 추구했던 신앙에 대한 수준 높은 표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종신 중앙의 횡대 아래 하부에도 상부 장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문의 명문과 구름 사이로 힘차게 날아가는 용을 배치하였다. 결국 수호의 대표적인 상징인 용이 종신을 휘돌며 범종의 제작 경위를 상세히 적은 염원의 글귀와 의지를 견고하게 수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다. 더불어 그 아래 인접해서는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문과 함께 3개의 구름 속 용들이 어울려 있어 천

상과 바다를 아우르는 용들의 위풍당당한 위상을 거듭 강조한 표현이 돋보인다. 이러한 명문과 용들의 표현이 극대화되어 강조되는 표현 역시 천보가 만든 기존의 두 종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성이다. 명문의 내용과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제작연도, 제작목적, 봉안처, 발원자 및 후원자, 제작 장인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범종에 국한된 내력만이 아닌 큰 전란(戰亂) 이후 보광사 재건을 위한 건축과 의식 범구들을 갖추었던功德의 역사, 그 과정에서 많은 승려 및 후원자들의 헌신과 노력 등을 오늘날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풍성한 명문 구성 역시 15세기 왕실 발원 범종의 형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 범종을 주성하면서 깨달음의 소리가 영원하길 기원했듯이 당시 모든 이의 염원에 대한 기록에도 뜨거운 쇳물을 부어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한 선조들의 신심과 정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도 4. 파주 보광사 동종 명문과 정신 장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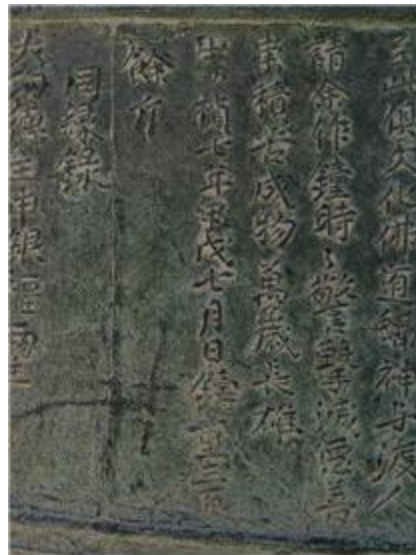
<형식>

<보광사 동종>은 높이 94.9cm의 중형 종으로 실외 혹은 실내 의식용으로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원통형의 종신(鍾身)에 상부로 가면서 폭이 좁아지며 최상단의 천판(天板) 역시 반구형(半球形)으로 솟아 있다. 이 천판 위에 종을 거는 역할을 하는 용뉴(龍鈕)가 두 마리인 쌍룡으로 구성되어 큼직하게 자리한다. 종신의 표면 장엄은 다채로운 소재로 공간을 충전하여 나뭇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다. 종신 중앙의 3선의 횡대를 통해 상부와 하부를 구획한 후 상부엔 상대(上帶), 연곽(蓮廓)과 연뢰(蓮蕾), 보살상(菩薩像), 범자문(梵字文) 등을 배치하고 하부엔 구름과 함께 하늘을 휘도는 역동적인 용과 함께 이 범종의 제작 경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명문(銘文)이 아주 선명한 글씨로 종신 하부 절반 이상을 두르며 새겨져 있다. 그 아래 종신 하단과 이격되어 표현된 하대(下帶) 내부 역시 용과 함께 바다를 상징하는 파도문으로 가득 충전하여 장엄을 극대화하고 있다. 쌍룡의 용뉴, 당당하고 안정적인 원통형의 종신, 경쾌한 표면 장엄,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는 명문의 존재 등으로 중국종의 형식을 수용하여 한국적인 조형 미감으로 새롭게 전개되었던 조선 전기(15~16세기) 범종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17세기 범종의 대표작이다.

<조성연대>

종신 하부에 새겨진 명문 후반부에 “..崇禎七年甲戌七月日鑄重三百餘斤...”이란 내용을 통해 숭정(崇禎) 7년(1634年) 조선(朝鮮) 인조(仁祖) 12년 7월에 주성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는 큰 병화를 딛고 사회 전반에 있어 민족 재건을 위한 동력을 결집할 시기로 불교계 역시 사찰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많은 불사(佛事)를 진행했던 정황을 이 범종을 존재와 명문의 내용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도 5. 조성연대 명문부>